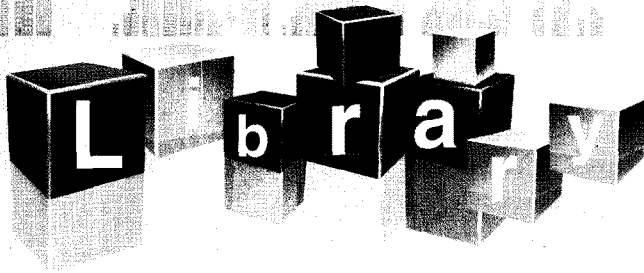


칼럼 · Column

# IT 기술과 도서관

이 상 호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shlee@su.ac.kr



1950년대 컴퓨터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정보통신 기술은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산학 정보검색 분야의 발달로 도서관에서 컴퓨터에 의한 도서 검색 시스템이 1990년대에 일반화되었다. 1990년 초반에 선보인 월드 와이드 웹 기술의 보급 및 발달로 전자도서관 개념이 탄생하였고, 최근에는 장소에 제한없이 일반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한 도서관 검색 시스템 접근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란 표현에 걸맞게 IT 기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새로운 기술을 국내에도 도입·적용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는 국민성도 일조하였겠지만, CDMA 와이브로(WiBro) 등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적용된 이동통신 기술도 다수 있으며, PC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등은 단연 세계 최고를 보여주고 있다. 하드웨어와 통신망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실험하거나 보급하기에 아주 좋은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작년 말부터 국내에서 시판하기 시작한 아이폰(iPhone)은 스마트폰의 열풍을 일으켰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련 경쟁 업체도 발 빠르게 자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산업적인 명확한 표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화 기능을 제공하고 소형 스크린을 가진 휴대용 컴퓨터이다.

스마트폰 확산에 힘입어, 스마트폰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개발 사용되고 있다. 도서관 관련 학회지, 학술회의 자료집에서 스마트폰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 폰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려고 한다. 첫째, 스마트폰은 제한적인 하드웨어를 가지는 휴대용 컴퓨터로 기존의 일반 개인용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에는 많이 못 미치나, 탁월한 휴대성을 제공한다. 기존의 도서관 검색 및 관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응용프로그램(일명 앱)을 개발하여야 한다. 기존 도서관 시스템은 향후 계속 사용되어질 것이며, 새로운 앱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 자료 검색과 대출 신청, 공지 및 안내, 도서관 좌석 실시간 현황 등 스마트폰 휴대성을 활용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을 위한 개발 플랫폼은 아직 여러 기술이 혼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플랫폼이 필요하며, 현재 이 시장은 아직 혼미한 상황이다. 애플 아이폰의 코코아(Cocoa) 플랫폼, 구글사의 안드로이드(Android) 플랫폼, 삼성사의 바다 플랫폼, MS사의 윈도우 모바일(Windows Mobile) 등 주요 플랫폼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다수의 플랫폼이 개발, 적용, 사용되고 있다. 플랫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 및 해상도도 다양하다. 더욱이 태블릿 PC 시장에서는 5인치, 8인치, 10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화면을 가진 다수의 제품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 및 진화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플랫폼의 변화는 앱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소개된 초기 단계에서 항상 관찰되는 기술의 균용할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도서관 서비스 개발 시에는 스마트폰의 최대 장점인 휴대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GPS 기능을 활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개발이 문헌에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휴대성을 활용하는 고급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블로그(Blog) 등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연계되는 앱을 개발하여야 한다. 사용자들은 도서관의 SNS 서비스와 상호 연동이 가능한 앱 사용을 선호한다.

앞으로도 지사 도서관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도서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글을 마친다. 